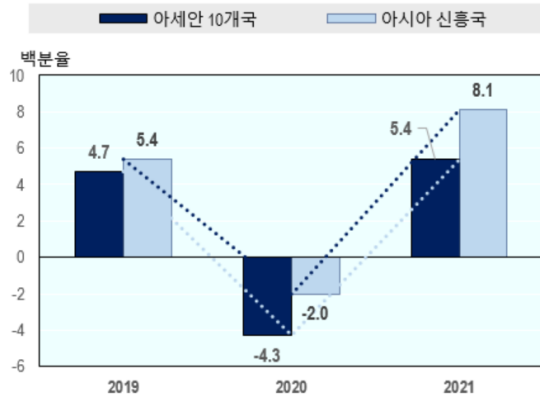


OECD 개발 센터, "아세안 국가의 경제 회복세를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 필요"

2020년 11월 13일 베트남 하노이- 새로 발간된 OECD 개발 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아세안 국가들은 COVID-19 위기로 인해 역내 경제가 지속적으로 타격을 받으면서 2020년 경제 규모가 평균 4.3% 축소할 것이라 밝혔다. 단기 경제 회복을 견인하고 금융 시장의 안정 및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재정 및 통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2019-2021 아세안 10개국 및 아시아 신흥국의 실질 GDP 성장률



수: 데이터는 2020년 10월 26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인도와 미얀마 데이터는 회계연도를 따른다. 라오스의 2019년 GDP 성장률은 추정치이다. 중국, 인도 및 인도네시아의 2020년과 2021년 전망치는 2020년 9월 OECD 경제 전망 중간 보고서를 기반으로 산출한 것이다.
출처: OECD 개발 센터.

수십 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경제 활동 수준이 감소했으나, 이처럼 예외적인 상황에서 정부와 중앙 은행들이 추한 사상 초유의 조치로 인해 올해에는 손실폭이 제한되고 내년에는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국가들은 2020년에는 GDP가 평균 4.3% 역성장하고 2021년에는 5.4%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 비즈니스 투자 정상회의에서 오늘 발표된 OECD 개발 센터의 "2020 동남아시아 중국 및 인도 경제 전망 보고서 11월 업데이트 COVID-19의 지속적인 과제"에 따르면,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및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신흥국의 성장률은 올해 평균 -2%, 2021년에는 8.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분기 GDP 성장률은 전반적으로 실망스러운 수준이었으나 3분기 이후 경기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 침체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없지만, 국내 상황과 공중 보건 상태에 따라 국가별 전망치는 차이를 보인다. 필리핀과 태국은 아세안 5개국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캄보디아는 라오스와 미얀마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성장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는 현재 누적 확진자 수가 35만 명을 넘어서는 등 역내 팬데믹의 진행 상황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거의 모든 성장 요소가 경기 하강 국면의 영향을 받고 있다. 노동 시장의 점진적 약화로 실질 가처분 소득 감소가 예상되면서 민간 소비가 특히 영향을 받고 있다. 생산설비 이용률이 감소하고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민간 투자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무역 분쟁의 재점화로 인해 세계 무역이 한자히 감소하고 글로벌 가치 사슬이 붕괴할 가능성이 떠오르면서, 수출은 약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금융 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이지만 금융 심리 약화로 인해 역내 자본 유입이 더욱 저해될 수 있다. 부문별로는 여행 및 관광 업계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정부 당국은 과감한 정책 기조를 통해 위기에 대응해왔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및 태국의 중앙 은행들은 2019년 말 이후 정책 금리를 75~300 베이스스 포인트(bp)만큼 낮추었으며, 전례없는 수준의 재정 부양책으로 통화 정책 지원을 보유했다. 상당한 규모로 예산을 증액하여 경제 활동을 지원하면 결국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정책 담당자들은 엄청난 경제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한 과제 중 하나는 효과적인 위기 대응을 위해 추가로 배분된 자원을 활용하여 기업 및 가계의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것이다.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 또한 과제로 꼽힌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이러한 이중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내 전체의 협력을 비롯한 폭넓은 정책 옵션을 고려해볼 수 있다.

"2020 동남아시아 중국 및 인도 경제 전망 보고서11 월 업데이트 COVID-19의 지속적인 과제(Economic Outlook for Southeast Asia, China and India 2019 Update: Ongoing challenges of COVID-19)에 대한 추가 내용은 www.oecd.org/dev/asia-pacific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 보고서는 일본, 한국 및 스위스 정부와 유럽 연합(EU)의 추가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ECD 개발 센터의 Kensuke Tanaka 아시아 지역 담당관(Kensuke.Tanaka@oecd.org, tel. +33 6 27 19 05 19), OECD 개발 센터 Bochra Kriout 미디어 담당관(Bochra.Kriout@oecd.org, tel. +33 1 45 24 82 96), 또는 OECD 도쿄 센터의 Yumiko Yokokawa(Yumiko.Yokokawa@oecd.org, tel +81 3 5532 0021)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